

오프닝 이벤트에서의 지사 코멘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도 지사 고이케 유리코입니다.

이번에 CHANGE 가맹도시로서 도쿄도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CHANGE의 론칭 이벤트가 개최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쿄는 시차 관계로 유감스럽지만 비디오 메시지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더욱 우호를 증진시켜 나갑시다.

그런데, 우리들 리더가 자기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임하고, 더욱 도시간의 연계를 꾀해 나가는 것은 각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 해결에도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2016년에 도쿄도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지사에 취임한 이래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는 도쿄 최초의 여성 지사입니다만, 내가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이 남녀평등 참여라고 하는 큰 과제에 대해 여러분과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COVID-19와의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COVID-19는 일본 도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OVID-19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음식, 관광, 서비스업 등은 원래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아 여성의 고용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워크의 진전 등으로 남성의 일하는 방식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가사·육아의 대부분을 여성이 짊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DV(가정폭력) 등의 증가·심각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가 앞으로도 활력 있는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도쿄도는 작년에 「미래의 도쿄 전략 비전」을 책정하고, 그 속에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2040년대의 도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첫번째는, 기업과 공적 기관, 지역, 정치에 있어서의 여성 활약이 당연히 되고, 여성이 자신의 희망에 따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치가나 기업 최고경영진의 절반이 여성이 되는 등 여성의 능력이 충분히 활용되는 사회가 실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쿄도도 정책이나 방침을 검토할 때에 설치하는 회의에 있어서의 여성위원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32%에서 40%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 향상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현재 도청 관리직의 20%가 여성입니다만 2030년까지 3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3번째는, 남녀의 취업율과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남성의 가사·육아가 당연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활기차게 생활하고 활약할 수 있는 다이버시티(다양성)의 실현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드디어 내년은 도쿄 2020 대회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방일할 수 있도록 만전의 감염증 방지 대책을 시행하여, 인류가 일체가 되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이기고, 그 유대를 더욱 강화한 상징이 되는 대회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아젠다 2020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CHANGE 이념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과 서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벤트 개최에 진력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HANGE의 활동을 통해 도시간 네트워크의 강력한 가능성을 세계에 제시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